

우석대 조현철처장, 체육상 시상식서 '연구상' 받아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조현철처장이 19일 전주 그랜드호스텔에서 열린 2024 전북체육상 시상식에서 연구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올 한 해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주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석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와 체육부 지용합연구소장을 겸하고 있는 조현철 입학처장은 급변하는 도내 교육환경에 발맞춰 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등 체육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현철 입학처장은 "이번 상은 연구뿐만 아니라 전북 체육의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며, 앞으로도 전북 체육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원주=염재복 기자



비전대 전기공학과 이주연 교수, 중소벤처기업 장관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 전기공학과 이주연 교수는 2024년 산학연 협력 유공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장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주연 교수는 산학연분야에서 다년간의 활동 실적으로 논문과 교내외 연구과제 수행 및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으며, 산학연계 인력양성 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였고,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대학 구성원 간 교류를 통해 고등교육에서의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표창을 수상하였다.

수상 후 이주연 교수는 "지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산학연계 인력양성 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김재훈 기자



기전대 권유정 팀장, LINC3.0 동계포럼서 유공 표창

전주기전대학 LINC3.0 사업단 권유정 팀장이 LINC3.0 동계 포럼 시상식에서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19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이번 동계포럼 시상식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전문대학 LINC3.0 사업단 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로 산학연협력체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탁월한 업적을 이뤄 국가 및 지역 발전에 혁신한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였다.

이번 동계포럼은 'LINC에서 RISE로'라는 주제로 LINC3.0 사업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 및 전문대학 글로벌 사업의 주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성과확산 및 공유협업을 위한 산학연협력의 발전 및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재훈 기자



지리산 심마나집 김용락씨, 사랑의 돼지저금통 전달

남원시 주천면은 연말을 맞아 관내 '지리산 심마나집' 김용락씨가 670만원 상당의 '사랑의 돼지저금통'을 전달해 왔다고 19일 밝혔다.

김용락·송희진 부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가족들이 이 열심히 모은 저금통을 기부함으로써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김용락씨는 "1년 동안 '지리산 심마나집' 구독자의 기부와 자녀들이 함께 일터를 모은 돈이라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이 돼지저금통을 기부합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사랑의 연탄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공무직노동조합과 함께 연탄나눔 행사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소속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이 겨울철에 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사람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19일 전주시 색장동 일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송상재 공무원노조위원장과 도영창 공무직 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노사가 같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노사가 합의한 한뜻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요즘 서로 위하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도내 전역에 확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노조는 영월군 일손돕기, 복지시설 배식봉사, 지역 농산물 팔이주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직장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소통과 협력의 허브...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준공식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9일 김제시자원봉사센터(동서로 158-1)에서 정성주 시장, 김운권 이사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및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월 착공해 이달 준공했으며 총 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888㎡, 연면적 827㎡,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주요 시설로 1층에 사무실, 정성나눔 조리실, 봉사단체 활동방, 운기나눔 카페와 2층에 교육실, 프로그램실, 대회의실, 중화의실 등이 마련되어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자원봉사 체계 구축의 중심



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시자원봉사센터는 단순히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넘어, 우리 지역사회를 밝힐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김제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간이자 함께 가는 자원봉사, 성장하는 김제시민의 거성이 되는 공간으로 지리매김하

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운권 이사장은 "지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며, 이번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준공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나눔과 상생의 김제시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정현옥 생활개선임실군연합회장, 여성농업인스타상 수상

임실군이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가 주관하는 '2024년 여성농업인스타상'에서 생활개선임실군연합회 정현옥 회장이 영농분야 스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농업인스타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생활개선회 활동이 모범적이고 성공한 여성농업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상으로 영농, 생활기술, 경영 3개 분야에서 선발하며 각 분야별로 스타상(상장상), 준스타상(청장상), 장려상(종양회장상)을 수여한다.

정현옥 회장은 낙농업에 종사하며 전북 우수목장 선정, 첫소 시양驯育분야 우수 경사로 활동하는 등 임실군 낙농



업 발전을 선도했다.

또한 이영장급 기탁, 육성호, 블레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고 생활개선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4년 여성농업인스타 영농분야 스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현옥 회장은 "부족한 자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리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생활개선회원의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취균 소장은 "앞으로도 생활개선회가 농업·농촌을 지키는 여성 지도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내년에도 새로운 영농 스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무주 설천면 지사협 등, 이웃돕기 앞장

무주군 설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지영, 민간위원장 전상호)는 지난 19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리며 떡국떡(70만 원 상당) 90kg을 설천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전상호 민간위원장은 "연말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을 떡국떡으로 전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설천면행정복지센터가 한겨울 한파로부터 운영되는 경로당 46곳에 달걀 180판을 지정·기탁했다.

최병용 이사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가 작은 도움이 되도록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같은날 설천면 상길리를 박범길 손민순 씨 부부는 쌀 20포대(1포대 20kg 73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손민순 씨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걱정"이라며 "고비도 추위도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 고부면에 1000만원 기탁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이 지난 18일 고부면에 1천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복형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15년째 이웃돕기 성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 모금회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이복형 의원은 시민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 5분 자유발언, 건의안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복형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시각지대 해소에 작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전건협 전북 등, 남원시에 성금 500만원 기탁

남원시는 12월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남원지회(지회장 강상원)에서 5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해마다 지역 내의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해 성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 서고 있으며 이번에도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부를 이어갔다.

강상원 지회장은 "어려운 시기 일수록 나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책임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경식 시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도통동, 사랑나눔고리 평가회·한끼 나눔

남원시 도통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19일, '1인 가구 1:1 사랑나눔고리' 지원사업 2024년 평가회 및 행복한 한끼 나눔 자리라를 가졌다.

이날 평가회는 도통동 우리동네 제1호점 행복나눔가게인 풍년킬국수에서 고립된 1인 가구에 방문하여 밀벗지원, 산책, 반찬지원 등으로 활동한 봉사자와 1인가구 이웃을 모시고 진행되었으며, 따뜻한 한끼 식사를 대접해 드리며 평가회를 마쳤다.

한 어르신은 "나에게 사랑의 나눔 고리를 이어준 도통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 한해도 모두 수고 많으셨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운봉읍 지사협, 영양 풍부한 밀반찬 지원

남원시 운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은주, 신동열, 이하 지사협)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4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영양 풍부한 밀반찬 지원사업'의 마지막 대미를 12월 19일까지 총 24회 추진했다.

밀반찬 지원사업은 지사협 공동모금회 재원과 운봉읍 4개 봉사단체(새마을부녀회, 여성의용소방대, 농기주부회, 생활개선회)와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생활관련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매듭지를 수 있었다.

농기주부회 박선임 회장은 "맛있게 드셔주시는 어르신들을 뵙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내년에도 더 맛있고 영양 풍부한 밀반찬으로 찾아뵙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